

『폭풍의 언덕』 연구 : Catherine의 비극을 중심으로

조 애 리

1.

*Wuthering Heights*는 처음 출판 당시 부터 설화적이고 고딕적인 면이 강조되어 왔으며 그것은 20세기에 들어서도 이 작품에 대한 비평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출판 당시 *Britania* 지에서는 독일의 이야기들과 유사하나 이상하게 독창적이며 “야성의 인간성”을 그리고 있다고 하여 고딕적이며 양식화된 인물 형상화를 지적하고 있으며 (William M. Sale, Jr. 282-83), *Examiner*지에서도 Heathcliff는 악의 화신이라하여 그를 사실주의적인 소설의 인물이라기보다는 설화나 고딕소설에 나타나는 알레고리적인 인물로 파악하고 있다 (William M. Sale, Jr. 281). 20세기에 들어 David Cecil은 *Wuthering Heights*가 인간의 사회·심리적인 관계보다는 인간과 우주의 관계 즉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의 원초적인 면을 그리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소설로 규정짓고 있다 (Cecil 300). Daiches 역시 Cecil과 같은 맥락에서 인간성의 심연 속에 자리 잡은 가장 완강한 힘은 문명이나 양반 행세라는 인위적인 세계와는 관계 없고 자연 속의 원초적인 힘과 연관되어 있다고 파악한다 (Daiches 109). 최근 들어 Frye는 좀 더 본격적으로 소설과 설화를 별개의 장르로 구분하면서 *Wuthering Heights*를 설화로 분류한다. 그에 따르면 소설은 실제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마스크를 쓴 인물들의 실제적인 삶을 다룬다는 반면 알레고리적인 성향이 강한 설화에는 현실적인 인물보다도 심리적 원형으로 확대될 수 있는 양식화된 인물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Frye 304).

그러나 Frye의 분류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Wuthering Heights*안에 “실제 사회라는 테두리”와 “사회적 마스크를 쓴 인물”이 존재하지 않느냐는 따져 보아야 하며, 더 나아가 그의 장르 분류 자체를 문제삼을 수 있다. 실제로 백낙청 교수는 *Wuthering Heights*를 좋은 의미의 설화적 요소 즉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인간 본연의 꿈을 구현하는 자세를 완강하게 고집하는 가운데 그것이 현실의 삶에 대한 가장 냉엄한 인식과도 하나를 이룬 새로운 차원의 작품으로 평가한다 (백낙청 258). 즉 *Wuthering Heights*가 사실적인 틀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협의의 사실주의와 설화적 상상력 결합으로 이루어진 협의의 사실주의와는 구분되는 리얼리즘 소설로 본다. 그는 *Wuthering Heights*야말로 “탁월하게 장편소설다운 장편소설” 즉 “소설의 변증법적인 성취”를 이룬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장르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지만 F.R. Leavis 역시 *Wuthering Heights*를 설화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그는 한편으로는 이 소설이 “삶의 표면을 평면거울처럼 반영할 것을 요구하던 18세기 이래의 전통과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고 지적하지만 다른 한편 이 소설이 “소설가에게 주제의 낭만적 해결의 짐을 지우는 Scott의 전통”과도 단절을 보이며 영국소설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일종의 돌연변이”로 보고 있다 (F.R. Leavis 39). 이 때 “일종의 돌연변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Leavis가 *Wuthering Heights*를 설화로 분류 될만한 소설들과의 연관성을 찾지도

않고 있으며, 평면거울적인 반영이라고 18세기 영국소설의 사실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어 이것은 오히려 Frye의 소설 개념에 대한 비판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소설의 개념을 상징할 경우에 실제 사회의 틀 안에서 사회적 마스크를 쓴 인물의 삶은 필요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Sanger의 논문은 이것을 밝히는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 Sanger에 따르면 *Wuthering Heights*는 1840년대에 쓰였고 1847년에 출판되었으나, 1771~1802년에 이르는 시기의 이야기라고 한다. 그는 이 작품이 보여 주는 정교한 시간의 틀이나 1834년 이전의 상속법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자세히 밝히고 있다(Sanger 286~88). Q.D. Leavis는 단순히 사실적인 틀을 밝히는 데서 나아가, 브론테가 시간을 정확하게 1801년에 끝나는 것에 신경을 쓴 것의 사회적 의미를 밝히고 있다. Q.D. Leavis는 이 시기가 자연스럽고 가부장적 가족에 기초한 과거의 거친 농경문화가 빅토리아시대의 계급의식과 양반행세라는 부자연스러운 이상을 만들어 낼 여러 사회적·문화적 변화에 도전받고 길을 여지고 변화되는 시기인 점에 주목한다(Q.D. Leavis 237).

Leavis는 Emily Brontë가 이러한 사실적인 틀 안에서 Catherine과 Cathy를 통해서 여성의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때 Leavis가 두 여주인공을 전면에서 세우며 특히 Catherine가 소설의 전반부의 진정한 도덕적인 중심(Q.D. Leavis 240)으로서 그녀의 사례는 “여성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론할 방법을 제공한다”고 한다(Q.D. Leavis 260). 이는 Catherine의 곤경과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여성으로서의 특수한 위치에 무관심한 비평가들 보다는 일보 전진한 것이다. 여성론적 분석과 비교할 때도 Leavis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Catherine와 Heathcliff가 자동동체를 이루던 것이 Hindley와 Linton가로 대표되는 가부장제의 힘에 의해 정복되었다는 도식적인 분석(Gubar and Gilbert 248~308)이나 Brontë의 주요 관심은 양성적인 측면 즉 인간성 중 성차의 세계를 넘나드는 측면이라는 주장¹⁾보다는 사줄만 하다. Leavis의 문제는 사실적인 틀은 단지 틀에 그치고 여성의 성숙과 미성숙은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별개의 도덕적인 우화로 다루고 있는 점이다. Catherine의 곤경은 도덕적인 우화만으로 처리할 경우 그 곤경 자체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당대의 사회적인 현실과 Catherine의 개인적인 선택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으며, Catherine의 구체적인 상황속에 오히려 18세기 후반 여성의 상황이 지니는 비극적인 함의가 드러난다. 또한 Q.D. Leavis처럼 Catherine의 열망을 퇴행적인 욕망으로만 축소시킬 경우 Catherine과 Heathcliff가 맺는 관계의 의미 또한 충분히 밝혀지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협의의 사실주의와 설화적 요소가 잘 어우러진 리얼리즘 소설로서의 *Wuthering Heights*의 성격을 인정한 후 Catherine의 선택을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 무산자 이면서도 가족을 매개로 계급적 특권을 간접적으로 누리는 18세기 말 젠트리 계급 여성의 모순적인 위치와 연관하여 이해하고 그러한 사회적인 규정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를 넘어서는 Catherine와 Heathcliff의 관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Wuthering Heights*는 특이한 서술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속에 끼여 있는 이중구조로 이야기를 한 층씩 열어 가는 가운데 새로운 층위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Lockwood의 서술이 이야기의 바깥 틀로 그는 Nelly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Nelly 또한

1) *Wuthering Heights*에 대한 여성론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Lyn Pykett, 131-133 참조.

제 3의 이야기—Heathcliff, Catherine, Isabella, Zillah들의 이야기—를 들어 준다. 본인의 설명에 의하면 사랑의 허무를 느끼고 도시에서 도피해 온 Lockwood은 *Wuthering Heights*에 들어 섰을 때 경쟁적인 외부세계의 피난처로서의 가정이라는 상투적인 전제 아래서 이야기 한다. “가족에 둘러 싸여 그리고 가정과 당신 마음의 수호신인 사랑스러운 당신 부인과 더불어”²⁾라고 Heathcliff에게 말을 거나 틀렸음이 확인되고 두번째로 Hareton이 “인정받지는 요정을 차지한 운 좋은 주인”(21)이나고 묻지만 역시 빛나간 것으로 밝혀진다. 독자는 Lockwood의 상투적인 말투나 전제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를 느끼지만 *Wuthering Heights*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Lockwood와 혼란을 공유한다. 이 혼란은 “얼음 같이 차가운 손을 지닌”(30) Catherine의 모습이 나타나는 Lockwood의 두번째 꿈으로 더 심해진다. 12살의 Catherine이 나타난 꿈은 Nelly의 관점에 여파되지 않아서 더욱 강렬하게 독자에게 다가오며 Lockwood과 함께 독자 역시 그 꿈의 의미에 강한 호기심을 느끼고 그 수수께끼를 푸는 일에 빨려들어 간다.

Nelly은 Lockwood의 혼란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Lockwood가 Nelly의 설명으로 자신이 느끼는 혼란을 정리하려고 하면서도 Nelly에게 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의미 심장하다. Nelly은 평범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관습적인 인물로 한계가 있는 인물임을 Brontë가 분명히 하고 있을 뿐아니라(Q.D. Leavis 234). 독자가 알고 있는 Lockwood의 꿈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아이러니의 대상이 된다. Nelly은 여자 하인이라는 계급적인 위치로 인해 Earnshaw, Hindley, Linton으로 이어 지는 주인의 가치 즉 “가부장적 가치”를 내면화한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인이나 특히 여주인에게 거리를 두는 면도 있다(Lyn 102). 대체로 Nelly는 아이러니의 대상이면서 이따금 주요 인물의 강렬한 감정을 자기 탐닉적인 것으로 자리 매김하는 수단이 되어 주인공들의 내면 깊은 곳의 열망은 충분히 드러내면서도 감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Lockwood가 Heathcliff에게 꿈이야기를 하자 그는 걱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Cathy, do come, Oh, do...Once more. Oh my heart's darling, hear me *this* time...Catherine, at last!”(33)라고 외친다. Lockwood은 이해할 수 없는 걱정을 단지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나 Heathcliff과 Catherine의 관계, 그것의 상실과 새로운 차원에서의 복원은 이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배하는 주제이다. Catherine과 Heathcliff의 관계는 “내 자신이 바로 Heathcliff야, 그는 언제나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있고 내가 내 자신에게 늘 기쁨인 것은 아니듯이 기쁨으로가 아니고 바로 내 존재로서 내 마음 속에 있어”(14)라는 소설 전체의 맥락에서 떼어 놓고 보면 다소 신비주의적인 선언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 책임감 있는 소설가의 손을 거치면서 18세기 말엽 영국의 요오크셔 지방의 특정한 변화와 얽혀 있는 구체적이며 개인적인 관계로 형상화되어 있다.

Catherine는 자작 농민의 딸이고 Heathcliff은 Liverpool에서 Earnshaw씨가 데려온 신분을 알수 없는 고아아이로 되어 있다. Heathcliff에 대해 Q.D. Leavis는 아직 소설화가 덜 된 설화적 요소이며 따라서 약점이라고 지적한다(Q.D. Leavis 241). 그러나 Heathcliff는 이 소설의 약점이 된다고 보다는 고아라는 특수한 위치로 인해 고독하나 동시에 자유로울수 있으므로, 신분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발휘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전형성을 떨 수 있게 된다.

2) Emily Brontë, 20. 앞으로는 직접 페이지 수만 표시하겠음.

코아인 Heathcliff가 Earnshaw씨의 귀여움을 받고 또 Catherine과 남매같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직은 가부장적 가족에 기반하여 농사를 짓는 Wuthering Heights의 구조가 Thrushcross Grange처럼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느슨한 위계 질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³⁾ Thrushcross Grange에 비해서는 Wuthering Heights가 건 강한 면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Emily Brontë는 Wuthering Heights의 긍정적인 함의와 아울러 그것이 지닌 위계질서 및 억압적인 면 또한 꿰뚫어 보고 있다. 물론 Wuthering Heights의 주인들은 나약하게 점잖은 것 아니고 하인들과 함께 노동하고 거실에서 생활하기는 하지만 계급사회적인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Heathcliff은 결코 남매나 자식의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며, 근본적으로는 하인에 가까웠다. Heathcliff가 받는 사랑은 Nelly에 대한 대우와 정도의 차이 지 기본적으로 종류가 다른 것은 아니었다. Hindley는 Heathcliff을 하인으로 규정지으려고 하고 Heathcliff는 이런 규정으로 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데서 둘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Hindley가 주인이 된 후 Wuthering Heights의 계급사회적인 측면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Heathcliff를 하인들과 함께 뒤 켤 부역으로 쫓아내고 더 이상 Catherine과 같은 침대를 쓰지 못하도록 한다. 죽어가는 Catherine은 12살 때 Hindley가 Heathcliff와 같은 침대를 쓰지 못하게 할 때가 가장 괴로웠다고 말한다. “난 아이였고 아버지가 막 돌아가신 후였어, Hindley 오빠가 Heathcliff와 날 갈라 놓으려 해서 비참했어.”(107) Hindley가 이 들을 갈라 놓은 것은 소년 소녀를 갈라 놓는 의미도 있지만 둘 사이의 신분적인 차이를 확실히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Wuthering Heights는 억압적인 세계가 되고 Catherine은 자신이 Heathcliff와 같이 억압을 당한다고 생각하며 Hindley에게 저항한다.

“An awful Sunday!...I wish my father were back again. Hindley is a detestable substitute... his conduct to Heathcliff is atrocious...H. and I are going to rebel...we took our initiatory step this evening...I took my dingy volume by the scroop, and hurled it into the dog-kennel, vowing I hated a good book. Heathcliff kicked his to the same place. Then there was a hubbub! (26~27)

Hindley의 억압은 주로 Heathcliff를 향한 것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Catherine 역시 같은 계급 내에서 성적인 차별로 인해 힌들리의 지배 아래 놓인다. 힌들리는 아버지의 유산과 지위를 물려 받아 주인이 되지만 Catherine은 주인이 될 수는 없는 위치이다. 하지만 Heathcliff와 비교할 때는 Catherine은 Earnshaw 가문의 딸로서의 매개된 계급적 특권을 지니고 있다. 이런 모순적인 위치가 갈등의 여지를 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녀와 Heathcliff의 연대는 공고하다. 그녀는 힌들리의 억압과 조셉의 종교적인 억압 앞에서 Heathcliff와 여전히 “우리”며 오히려 더 강렬한 일체감을 느낀다.

이 연대감과 사회의 구조적인 힘과의 갈등은 Thrushcross Grange의 창문을 넘어 들여다본 사건으로 나타난다. Emily Brontë는 이들의 관계가 지닌 힘과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Hindley가 지배하는 Wuthering Heights와 Thrushcross Grange까지 포함한 계급 사회 속에서 이들의 계급적인 피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이 사건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Heathcliff의 관점에서 제시된 이 장면에서 Heathcliff은 자신과 Catherine의 계급적 차이를 외부적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 Catherine가 기꺼이 남으려는데 당황한다. Thrushcross Grange를 처음

3) Wuthering Heights와 Thrushcross Grange의 상세한 비교로는 김정미 10-20 참조.

보았을 때 그들은 둘 다 “진홍색 카페트가 깔린 그곳의 위엄에 눌러 천국에 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곧 Linton 가의 아이들이 애완견을 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경멸한다. 이들은 Linton가의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이 우스워 웃다가 들키는 데 Linton씨는 Heathcliff에 대해서는 “본성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 자리에서 그 늑을 교수형에 처하겠다”(49)고 하면서도 개에 물린 Catherine은 집안으로 데려가 치료하고 돌보아 주는 계급적인 편견을 드러낸다. 이러한 Linton가 사람들의 차별 보다도 Heathcliff에게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창문 너머로 관찰한 Catherine이 이 경멸스러운 Linton가 사람들에 둘러 싸여서도 저항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Catherine이 구원을 요청하는 손짓을 보내기만 기다리지만 Catherine은 그의 기대를 배반한다. “Catherine이 돌아 오고 싶어 했고 그들이 그녀를 놓아 주지 않으려 했다면 그 집의 큰 유리창을 산산조각 내 버렸을 거야”(49)라고 Nelly에게 고백한다.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Heathcliff의 관점에서 전달 됨으로써 Heathcliff의 상처가 절실하게 전달되는 반면 Catherine의 내면에 대해서는 Heathcliff와 경멸의 감정을 공유하면서도 Thrushcross Grange의 천국 같은 모습에 Heathcliff보다 더 강력하게 이끌렸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Catherine에 대해 Q.D. Leavis는 사회적인 우월성과 부의 유혹에 내면적으로 굴복하여 Heathcliff와 갈라서게 된다(Leavis 233)고 도덕적인 수준에서 비판한다. 오히려 Hindley가 Heathcliff를 뒤결 부엌으로 쫓아내는 등 신분적으로 차별하는 데도 “우리”로서 맞서는 것이 Catherine에게 어려운 일일 수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Thrushcross Grange에 대한 이들의 감정은 찬탄과 경멸의 양면인데 “우리”의 감정이긴 하지만 Catherine이 자신의 신분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그곳에 이끌리는 것은 힌들리에 의해 지배되는 당시의 Wuthering Heights의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물론 Catherine에 비해 이곳에 받아들여 질 수 없는 국의자인 Heathcliff가 이곳의 한계를 좀 더 명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은 사실이다.

3.

Catherine이 Thrushcross Grange에서 돌아온 3년간은 갈등의 시기였다. Catherine은 Heathcliff와의 관계가 자신의 본성의 더 깊은 부분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것을 무시하면서 Edgar와의 관계를 발전시킨다. 그녀가 이런 갈등 속에서 느끼는 긴장이 잘 극화된 것은 8장이다. 그녀는 Edgar의 방문에 대비해 Heathcliff를 쫓아내고 내심 불편해 있다. 그녀는 Edgar와 단둘이 있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Nelly에게 화를 내고 조카인 Hareton을 때리며, 그를 말리는 Edgar의 따귀를 때리면서 “고의로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라고 자신을 옹호하면서 Edgar에게 가려면 가라고 한다. 그녀는 Edgar가 가려고 하자 “난 울어버릴거야(I'll cry myself sick)”라고 하는데, 15살 때의 이 방식이 그녀가 주위사람을 지배하는 방식이며, 결혼 후에도 굶어서 열병에 걸려 자살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두 남자를 모두 파멸시킨다는 것이 Q.D. Leavis의 지적이다(Leavis 248). 이 장면에서 Catherine이 느끼는 긴장을 잘 포착한 것은 Leavis의 훌륭한 지적이나, Catherine의 열병과 자살에 가까운 죽음까지 두 남자를 지배하는 방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Catherine의 열병에 대한 지나친 폄하이다. Catherine에 대한 도덕적인 비판을 넘어서서 그녀의 긴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Wuthering Heights와 Thrushcross Grange라는 배경의 사실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Catherine이 겪는 갈등을 18세기 말 영국 여성이 겪는 억압과 갈등이

라는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Catherine은 억압적인 Wuthring Heights를 벗어나고 싶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Thrushcross Grange나 Edgar가 제공하는 안온한 삶이 진정한 대안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Heathcliff의 관계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킬 현실적인 장을 찾지도 못한다. 1834년 이전의 상속법에 따르면 Earnshaw씨의 사망으로 Wuthering Heights와 동산은 모두 Hindley에게 상속되고 Catherine에게는 동산의 일부만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때 Catherine에게 상속될 재산이라고는 가축과 가구밖에 없다. Catherine에게 있어 Heathcliff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결혼을 한다면 그것은 곧 하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Nelly 네가 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건 알아, 하지만 넌 내가 Heathcliff와 결혼하면 거지가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적이 없니? 그렇지만 내가 Linton과 결혼한다면 Heathcliff가 출세하는 걸 도울수도 있고 오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말아야?”(73) 이에 반해 Edgar는 Catherine의 깊은 열망을 만족시켜주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801년 Yorkshire 지방의 처녀인 Catherine이 채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출구이며 일면 그녀는 Linton에게 매력을 느끼기도 한다. 그에게 끌리는 이유에 대해 Catherine은 “그는 잘 생겼고 같이 있으면 즐겁거든...그가 날 사랑해서지...그리고 그는 부자가 될 거고 난 이 근방에서 제일 멋진 여자가 되고 싶고 그런 남편을 갖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70)라고 한다. 그는 물론 그녀의 본성의 가장 깊은 부분을 만족시켜주지는 못하지만 세련된 예절과 점잖음 등 칭찬할 만한 자질들을 지니고 있고 바로 이런 자질들 때문에 그녀의 본성의 어떤 수준에서는 Edgar의 사랑에 반응하게 된다(Traversi 265).

Catherine이 Edgar를 선택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이며 19세기 소설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Austen 이래 여주인공들은 재산있고 지각있는 교육 받은 남자와 결혼을 해왔고 Catherine이 Edgar와 결혼하는 이유 역시 이러한 사회적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이성적이고 신중한 판단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선택을 탐구하는데 있어 Brontë는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며 이 점이 그녀가 Charlotte Brontë와 다른 점이다. Charlottë는 불편해 하면서도 사회적 타협과 개인적 성취 사이의 연관을 추구하나 *Wuthering Heights*의 세계에서는 그런 연관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Eagleton 102). 오히려 그녀의 선택은 자신과 Heathcliff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 넣는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그녀는 Edgar와의 결혼이 문제될 게 뭐 있다는 Nelly에게 영혼 깊숙한 곳에서 애드가를 선택하는 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다고 한다.

“Here! and here!” replied Catherine, striking one hand on her forehead, and the other on her breast, “in whichever place the soul lives—in my soul, and in my heart, I’m convinced I’m wrong!...he’s more myself than I am. Whatever our souls are made of, his and mine are the same, and Linton’s is as different as a moonbeam from lightning, or frost from fire...I cannot express it; but surely you and everybody have a notion that there is, or should be, an existence of yours beyond you. (74)

Catherine의 고백은 Nelly를 통해 전달 됨으로써 효과적으로 Catherine의 애착의 깊이를 드러내며 동시에 자기 탐닉적인 면을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된다. 이 장면에 대해 Q.D. Leavis는 Catherine를 사악하고 이기적인 소녀로 보는 Nelly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며(Leavis 254~55), Eagleton 역시 Catherine이 Heathcliff가 구현하는 초 시간적·형이상학

적인 면은 침범하지 않으면서 Edgar에게 의지하려고 한다고 평가한다(Eagleton 102). 그러나 Emily Brontë는 Nelly를 화자로 택함으로써 Catherine이 Heathcliff를 도와 주겠다는 말에 대해서는 Catherine의 허위의식을 드러내는 반면, Heathcliff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변명이나 헛소리로만 여기는 Nelly에 대해서도 거리를 둠으로써 Catherine의 내면 깊숙한 곳의 열망과 현실적인 대안 사이에서 겪는 갈등을 충분히 독자에게 납득시키고 있다. 이 갈등이 제대로 극복되지 못한 책임은 Catherine의 심리적 미성숙 보다는 Heathcliff와의 관계를 실현할 장을 찾을 여지를 마련해 주지 않는 18세기 말(영국)의 사회현실과 그 현실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Catherine의 의식의 한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Heathcliff의 계승장은 Thrushcross Grange에 융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Catherine의 삶의 모순을 폭로한다. Brontë 이전의 소설에서 여주인공의 결혼은 모순의 해결이자 여주인공의 성취로 나타났던데 반해 Brontë는 Catherine의 결혼이 안고 있는 모순을 통하여 Thrushcross Grange로 대표되는 젠트리 계급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비판한다. Heathcliff가 등장했을 때 Edgar가 보이는 반응은 그가 이전에 Thrushcross Grange를 들여다 보다 들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보였던 반응과 유사하다. Heathcliff도 물질적인 성공을 했으나 여전히 Thrushcross Grange에는 외부인이고 이 때 변화한 것은 Catherine 자신의 태도이다. 이전의 Catherine은 Heathcliff가 추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실에 머물고 싶어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더 깊은 내면적인 충동에 따라서 두개의 식탁을 준비하라고 한다. “하나를 양반이신 주인님과 이사벨라 아가씨를 위한거고 나머지 하나는 천한 나와 히쓰클리프를 위한거야”(84) 그녀는 그곳에서 사는 동안 처음 거실을들여다 보았을 때 느꼈던 경멸감이 옳았음을 절감했으며 그것은 린튼 씨가 Heathcliff에게 보였던 젠트리의 계급적 편견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Edgar에 대해 전혀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녀의 과잉 반응과 과장된 행동은 그녀가 느끼는 긴장을 전달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dgar, Heathcliff, Catherine의 3자 대면 장면도 다시 한번 Catherine의 관점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Q.D. Leavis는 이 장면이 고통스러운 이유에 대해 Catherine은 Edgar와 Heathcliff 양자를 모두 소유할 수 있다는 환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남성을 괴롭힌다고 한다(Q.D. Leavis 246). 하지만 이 삼자 대면에서 진정으로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바로 Catherine 자신이며, 그것은 Catherine의 병으로 확인된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열망이 현실적으로 용납될 수 없음을 의식하는 데서 오는 긴장으로 통제력을 잃는 것이다. 미쳐가는 Catherine은 Nelly가 무감각하다고 비난하는데 사실 Nelly는 Catherine가 종이 부서지도록 울려 대도 꾸물대고 집안의 결렬한 감정적인 갈등에 관계 없이 집안 일을 한다. Catherine이 미쳐가는 장면은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으며 그것이 Nelly의 무심한 태도 앞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그녀의 “끔찍한 고립”이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된다(Klingopalas, 276). Catherine의 병은 결혼 외에는 다른 출구가 없는 사회적 제한과 본원적인 열망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통합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은 일면 그녀에게 창조적인 통합의 장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당대 사회현실의 한계이기도 하다.

열병에 들뜬 Catherine가 자아와 대면하자 Mrs. Linton이라는 어렵게 유지되어온 역할은

깨지고 갈등이 외면화된(Visick 399), 그녀에게 지난 칠년은 “백지”가 되어버리고 그녀의 심오한 자아는 *Wuthering Heights*의 환상속에서만 유지된다.

‘But supposing at twelve years old, I had been wrenched from Heights, and every early association, and my all in all, as Heathcliff was at that time, and been converted at a stroke into Mrs Linton, the lady of Thrushcross Grange, and the wife of stranger; an exile and outcast, thenceforth, from what had been my world...Oh I’m burning! I wish I were out of doors! I wish I were a girl again, half savage, and hardy, and free; and laughing at injuries, not maddening under them! Why am I so changed? Why does my blood rush into a hell of tumult at a few words? I’m sure I should be myself again were I once among the heather on those hills, (109)

Thrushcross Grange의 방은 그녀에게 감옥이 되어버린다. 그녀는 Nelly에게 자꾸 문을 열어 달라고 하고 마침내 창밖으로 몸을 기울였을때 보는 *Wuthering Heights*의 비전은 현실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세계 속으로 그녀를 해방시켜준다. Q.D. Leavis는 이런 Catherine의 절망에 대해 어린시절로 부터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 즉 어린시절이 지난 후 자신의 가장 깊은 부분을 성인의 삶속에 흡수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보며, 이런 무능으로 인하여 퇴행적인 욕망을 갖게 되고 이 퇴행적인 욕망은 죽음과 통한다고 분석한다(Leavis 215). 그러나 심리적인 수준에서 볼 때도 Homans의 지적대로 Catherine의 죽음 본능은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수준에서 알고 사랑한 개인인 Heathcliff와 재결합하는 것이다. 이들은 어린 시절의 친구로서 되돌아 감으로써 다시 태어나며 둘 사이의 동일시는 부모의 기원과는 다른 새로운 기원을 형성하며 이 새로운 기원 때문에 Catherine의 죽음의 욕망을 높이 평가해야한다는(Homans 156) 주장이 더욱 타당하다. Apter 역시 Catherine의 열망을 도피주의로 간주하고 그 묘사는 생생하지만 Brontë가 그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암시는 없다고 한다(Apter 215). 그러나 Catherine의 그리움의 대상인 어린시절은 낭만주의자들의 막연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어린시절과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반은 야성적이고 대담하고 자유로운” 상태일 뿐 아니라, *Wuthering Heights*라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Heathcliff와의 생생한 개인적이며 동시에 개인을 넘어선 관계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관계를 성인의 삶 속에 흡수할 수 있느냐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순히 Catherine의 심리적·도덕적 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사회적 조건과 관련된 것이며 인간의 본원적인 열망과 모순되는 젠트리 계급의 결혼을 통해 젠트리 계급의 삶 자체가 근본적인 비판의 대상이 된다. Catherine의 비전은 단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 속에서 구현되지 못한 열망의 시적인 형상화이며 Brontë 역시 그것을 공유하고 있다. Catherine은 자신의 열망을 억압하고 내면화된 사회적인 제한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고자 했으나 그에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실패는 패배가 아니며 오히려 그 실패로 인하여 비극적 여주인공의 지위를 획득하며 그 비극의 관점에서 그녀를 제한한 젠트리의 삶의 방식이 근본적인 비판을 받게 된다.

캐서린의 비극에 촉매 역할을 한 것은 Heathcliff가 자본가로 재등장한 것인데 그 사실 자체는 개연성이 있는 일이다. 그 당시 영국사회가 중간계급 남성에게 허용했던 유동성을 감안한다면, Heathcliff가 2년 뒤 돌아와 점차 Hindley의 *Wuthering Heights*를 사게되는 것은 설화적인 요소 만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좌절시킨 Hindley와 Linton가문의 사람들 나아가 Catherine에게 까지 복수를 하는데, 이 강박적인 복수는 Catherine의 배신에 느꼈던 좌절의 깊이를 드러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Catherine에 대한 그의 복수는 Catherine

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은 아니다. Catherine이 “난 바로 Heathcliff야”라고 할때 그녀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Heathcliff란 존재와의 연관속에서 의미를 지니듯이 Heathcliff의 본질이 규정지어지는 것도 Catherine과의 관계 속에서이다. 마지막 만남에서 두 사람은 적개심으로 자신들의 깊은 사랑을 표현한다. 그녀는 자신이 죽어 가는데도 “광독한 복수심”에 차 자신을 대한다고 Heathcliff을 비난하고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고뇌를 그녀의 지독한 이기심 탓으로 돌린다.

“I wish I could hold you,” she continued, bitterly, “till we were both dead! I shouldn’t care what you suffered, I care nothing for your sufferings. Why shouldn’t you suffer? I do! Will you forget me? will you be happy when I am in the earth? Will you say twenty years hence, “That’s the grave of Catherine Earnshaw, I loved her long ago, and was wretched to lose her. but it is past...” (133)

Catherine은 그의 고통에 무심한게 아니라 그의 고통을 통하여 죽은 후에도 그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 여기서는 Edgar와의 결혼은 더 이상 현실감을 띄지 않고 그들의 열정만이 생생한 진실로 다가 온다.

Heathcliff에게 있어 Catherine의 배신은 단순히 자신에 대한 배신이 아니고 그 두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저버린 행위이다.

Why did you betray your own heart, Cathy? I have not one word of comfort. You deserve this. You have killed yourself... You loved me then what right had you to leave me?... because misery, and degradation, and death, and nothing that God or Satan could if it would have parted us, you, of your own will, did it, I have not broken your heart—you have broken it—and in breaking it, you have broken mine” (134~35)

이러한 Heathcliff의 비난은 그들의 연대의 궁극적인 정당함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담고 있고 Catherine가 지배 계급의 일원으로서 매개된 이익을 누리려 한 것에 대한 정확한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Catherine가 여성으로서 겪는 사회적 제한과 그것을 넘어서려는 그녀의 열망으로 인한 갈등까지 끌어 안지는 못한다.

Catherine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되는 Heathcliff의 복수는 Catherine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지만 Catherine가 도달한 비전 속의 유대와는 모순된 것이며 Catherine의 비극의 의미는 Heathcliff의 죽음을 통하여 비로소 완성된다. Eagleton의 지적대로 Catherine과의 진정한 관계가 절연된 상태에서 Heathcliff가 보이는 사회적 자아가 잘못 된 것은 단지 그가 잔인하기 때문이 아니라 Catherine와 함께하는 진정한 정체성과 모순되기 때문이다(Eagleton 105). Heathcliff의 복수과정은 “자본의 일반적인 속성의 한 측면”(백낙청 253)을 관철하는 전형성을 띄고 있으며, 그의 진정한 정체성과 그의 복수 과정의 모순은 곧 자본의 일반적인 속성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하지만 독자는 Heathcliff의 열정이 왜곡된 형태를 띄기는 하지만 일면 그 절실함과 진실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고 29장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Heathcliff에 대해 공감하게 된다. 3장에서 Lockwood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던 Heathcliff의 비탄이나 17장의 이사벨라를 통해 들을 때 악마나 광인의 행동처럼 보였던 Heathcliff의 행동을 29장에서 다시 Heathcliff의 관점에서 들음으로써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게 된다. 29장의 1801년 9월의 Heathcliff의 이

야기는 거의 보일 것 같은 유령을 쫓아 공동묘지에서 Catherine가 예전에 쓰던 방에까지 따라갔다는 것이다. 17장에서 이사벨라는 그의 필사적인 욕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에 가득 찬 그의 표정에 공감하는 대신 순간적으로 나약해진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욕망에 사로 잡혀 Catherine와 결혼했다라도 Catherine 역시 자신과 같은 증오와 역겨움만 느꼈을 것이라고 한다. 이사벨라는 Heathcliff가 던진 칼에 맞았으나 그녀의 조롱은 그 보다 더 치명적인 “화살”이 되어 그의 가슴에 꽂힌 것을 29장에 이르러서야 알게 된다(Knoepfmacher 58).

Heathcliff은 마침내 Catherine가 Wuthering Heights의 비전을 본 것 처럼 18년 동안 기다려 왔던 Catherine과의 유대를 새로운 비극적인 차원에서 복원한다. Heathcliff는 즐기는 능력을 회복하고 Hareton과 Nelly는 그의 흥분 “이상한 즐거운 빛”을 관찰하는데 이는 그가 복수의 무의미함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진행된다. 그는 스스로도 “난 너무 행복해. 하지만 아직 충분히 행복하지는 않아, 영혼의 축복은 육체를 죽여가면서도 아직도 만족할지를 몰라”(262)라며 거의 천국에 도달했다는 자신의 말처럼 죽은 후 그는 “산사람 같은 황홀한 눈길”로 마침내 Catherine와 결합을 이루었음을 증언한다. 그가 겪은 침울함과 광란, 그리고 그가 도달했다고 하는 천국,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그가 겪은 고통과 마침내 얻은 평온은 Catherine의 비극의 의미를 완성시켜준다.

5.

*Wuthering Heights*는 Wuthering Heights가 제시하는 사회 유형에서 Thrushcross Grange가 대표하는 계급의식이 지배적으로 되는 사회로의 변화를 제시해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Catherine과 Heathcliff의 유대와 그것의 좌절 그리고 죽음을 통한 비극적인 복원 속에서 그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저항을 담고 있다. 그것은 Wuthering Heights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복고적인 회귀를 역설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역사적인 과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단계의 역사에서는 실현 될 수 없으나 무시될 수 없는 본질적인 삶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Cathy는 다음 세대에 가능한 사랑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Cathy가 Wuthering Heights와 Thrushcross Grange를 실제로 또 상징적인 면에서 통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Catherine의 열망을 바람직하게 실현한 대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Cathy가 대표하는 Thrushcross Grange의 세련된 우아함이 별 저항없이 Hareton에게 받아들여져 Cathy와 Hareton이 함께 진포도 덩불을 치우고 그 곳에 화단을 만드는 것은 Thrushcross Grange의 가치의 승리를 상징한다. 또 이들은 Heathcliff의 죽음으로 그 가치를 담보할 물질적인 토대까지 갖추게 된다. 당대 상속법에 대한 Sanger의 세밀한 연구에 따르면 Heathcliff가 죽은 후 그가 소유했던 동산은 왕에게 간다고 해도, Thrushcross Grange는 Cathy에게 *Wuthering Heights*는 Hareton에게 가게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사회적인 현실에 잘 통합된 안온함을 풍길 뿐 죽음의 멧가를 치른 Heathcliff와 Catherine의 성숙한 열정에서 엿보이는 비극적인 깊이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Eagleton은 Catherine과 Heathcliff의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이면서 그것을 넘어선 비 개인적인 관계임을 지적하므로써 이들의 관계가 갖는 전형성을 시사하면서도 그것이 사회적 매개를 지나쳐 우주적인 지위에까지 상승했다고 한다(Eagleton. 108). 그가 이처럼 이들의 관

계를 사회적 매개를 거치지 않았다고 본 것은 Catherine의 갈등이 지닌 사회적 의미를 간과 했기 때문이다. 18세기 말엽의 영국 요오크셔 지방에서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Catherine의 선택과 고통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의 부대낌에서 나온 것이다. 그녀와 18년 후의 Heathcliff의 죽음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이들의 관계가 갖는 비극성은 셰익스피어 비극이 그러하듯이 구체적인 현실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면서도 마침내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욕망을 벗어난데 있다. Brontë는 Catherine과의 관계를 통해 18세기 말엽 그리고 Brontë 자신의 당대의 사회현실 속에서는 실현 될 수는 없었지만 역사의 어느 단계에선가는 실현되어야 할 진정한 삶에 대한 염원을 비극적인 질서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Works Cited

- Apter, T.E. "Romanticism and Romantic Love in *Wuthering Heights*," Ed. Anne Smith. *The Art of Emily Brontë*. London: Vision, 1976.
- Britannia, January 15, 1848. Ed. William M. Sale, Jr. *Wuthering Heights*. New York: Norton, 1972.
- Brontë, Emily, *Wuthering Heights*. Ed. William M. Sale, Jr. New York: Norton, 1972.
- Cecil, David, "Emily Bronte and *Wuthering Heights*." Ed. William M. Sale, Jr. *Wuthering Heights*. New York: Norton, 1972.
- Daiches, David "Introduction to *Wuthering Heights*." Ed. Ian Gregor. *The Brontës: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 1970.
- Eagleton, Terry. *Myths of Power: A Marxist Study of the Brontës*. New York: Barnes and Noble, 1975.
- Examiner*, January 8, 1848, Ed. William M. Sale, Jr. *Wuthering Heights*. New York: Norton, 1972.
- Frye, Northrop. *Anatomy of Criticism: Four Essays*. Princeton: Princeton U.P., 1973.
- Gilbert, Sandra M. and Susan Gubar, *The Madwoman in the Attic: The Woman Writer and the 19th-Century Litorary Imagination*. New Haven: Yale UP, 1979.
- Homans, Margaret. *Women Writers and Poetic Identity*. Princeton: Princeton UP, 1980.
- Klingopulos, G.D. "The Novel as Dramatic Poem(II); 'Wuthering Heights'." *Scrutiny* 14, 4 (1947): pp. 239-86.
- Knoepflmacher, U.P. *Emily Brontë, Wuthering Heights*. Cambridge: Cambridge UP, 1989.
- Leavis, F.R. *The Great Traditi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4.
- Leavis, Q.D. *The Englishness of the English Novel*. Cambridge: Cambridge UP, 1983.
- Sanger, Charles Percy. "Structure of *Wuthering Heights*." Ed. William M. Sale Jr. *Wuthering Heights*. New York: Norton, 1972.
- Pykett, Lyn. *Emily Bronte*. London: Macmillan, 1989.
- Traversi Derek, "The Brontë. Sisters and *Wuthering Heights*" Ed. Boris Ford, *Pelican Guide to Literature, Vol. 8*.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7.
- Visick, Mary. "Catherine Earnshaw and Edgar Linton" Ed. William M. Sale, Jr. *Wuthering Heights*. New York: Norton, 1972.

김정미. 『리얼리즘 소설로서의 *Wuthering Heights* 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1988.

백낙청. 「『폭풍의 언덕』의 소설적 성과」, 『외국문학』 봄. 서울 : 전에원, 1987.